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옷 가진 이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습이 훌륭합니다.”라고 말했다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덕분에 삽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름다운 베품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허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눔이란 그런 것이다.

성서에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요한 3:18).”라는 구절이 있다. 나눔의 첫걸음은 ‘공감’이고 ‘함께 함’이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반투족의 말이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자주 애용했던 말이다. 어느 날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게임을 했다.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 큰 나무 밑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공동체 정신에서 나눔의 정신이

에 초코렛, 과자, 사탕이 가득 담긴 선물 바구니를 놓아두고서,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 모두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임을 시작한 학자는 이를 가져가기 위해 틀림없이 기를 쓰고 달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출발신호를 주는 순간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잡고 한 줄로 뛰어갔던 것이다. 모두가 1등을 한 것이다.

도란도란 웃음 띤 얘기를 하면서 나눠 먹었다. 하도 신기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모두 “우분투”라는 말을 합창했다.

한 아이가 대표로 일어나서 “내가 1등을 해서 과자를 독차지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슬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과연 문명사회에서도 그랬을까? 그 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나머지 5대륙에서 동일 실험을 했었다. 그런데 급반전이 나타났다. 모든 아이들이 한결같이 1등을 하려고 기를 썼다는 것이다. 결국 1등이 독차지

해버렸다. 6대륙 가운데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만이 더불어 나누는 행복을 느끼며 손을 잡고 함께 달렸던 것이다. 첨단을 달리는 현대 문명 세계, 이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체질화된 경쟁문화만 있었던 것이다. 승자독식과 갑질 문화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참으로 무서운 현상 아닌가.

온갖 탐욕으로 얼룩져가는 현대인들. 탐욕은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은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기업들,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그 탐욕을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만족은 잠시. 마치 짜디짤 해수 돌이킨 사람 들처럼 또 다른 목마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의 끝은 죽음밖에 또 있겠는가. 성서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뭐가 다를까. 가난하더라도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다. 인간은 인간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식물도 군락지가 있듯이, 사투에서 말한 세례자 요한의 말을 곱씹어 보면 어떻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낭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당신의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철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여러분의 눈과 관심이 소방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참여의 대가'입니다.

[신고 대상]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고장을 그대로 방치

하는 행위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작동이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으로 막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고 내용]

불법행위가 확인 가능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비공개 처리)

[신고 방법]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진가를 발휘하는 생명의 장치입니다. 이 중요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보인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 당신의 신고가 지킵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은주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음력 6월 3일)



48년생 초라한 이익보다 가치를 높여보자 60년생 급하지 마라 기다리면 복이 온다 72년생 팍팍했던 살림에 여유가 다시 온다 84년생 까다로운 기준을 유순하게 구분하자 96년생 만족스러운 결과 백점을 받아낸다



49년생 실망이하던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 61년생 근거 없는 허세 가난만 낙혀진다 73년생 목표는 근거리 눈으로 보여진다 85년생 발품을 팔아야 진짜와 만나진다 97년생 학교에서 못배운 세상 공부해보자



50년생 재촉하는 부름 이유를 지켜보자 62년생 시집살이 동거 보따리를 싸내자 74년생 동지 같은 손님의 기특함 해보자 86년생 평평한 힘겨루기 반드시 이겨내자 98년생 순위에서 밀려난 조건이 되야 한다



51년생 어렵다 부닥에 공 한쪽도 나눠보자 63년생 똑같은 당부 간섭으로 둘러진다 75년생 밤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보자 87년생 작은 규모 의 시작 꿈을 만들어가자 99년생 아삭함도 원망도 바람에 실어내자



52년생 하하호호 웃음 울다가 한해진다 64년생 정상에서의 기쁨만 세가 불려진다 76년생 자제감각 연상 뒷담을 저야 한다 88년생 나무랄데 없는 완벽을 보여주자 00년생 근사한 일마리로 칭찬을 받아내자



53년생 미리 하는 예측 낙제점을 받아낸다 65년생 그림의 떡이다 기어에서 지워내자 77년생 귀해진 대접 비단옷이 걸려진다 89년생 조심스러운 접근 차분히 알아가자 01년생 시선 매지 못하는 만남을 가져보자



52년생 감자탕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 66년생 미움을 편하게 차선으로 돌려보자 78년생 조금씩 시도로 완성을 향해 가자 90년생 새로운 세상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 02년생 달리 없는 방법 부지런히 땀 흘리자



55년생 연애하던 시절 자신감을 지켜오자 67년생 필요했던 도움이 때를 맞춰준다 79년생 한술밥 식구와도 주고받아야 한다 91년생 풍성한 수확으로 지갑을 살찌우자 03년생 욕심을 줄이고 낭비를 막아내자



56년생 여러 군데 전처 비뚤게 움직이자 68년생 자량도 정도껏 홀로 변해진다 80년생 든든한 밑천으로 행복을 쌓아가자 92년생 거칠고 힘든 일이 보람을 더해준다 04년생 씩씩하고 정갈한 모습만 보여주자



57년생 신바람 나들이에 기분도 들썩인다 69년생 식이었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른다 81년생 의지하고 싶은 친구를 찾아가자 93년생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남겨진다 05년생 별고운 이야기 청춘 꽃이 피어진다



58년생 살리고 흥분되는 제안을 들어보자 70년생 나누는 인심 큰 손부자가 되어보자 82년생 어딘지 불편해도 미소만 보여주자 94년생 오래했던 계획 출발선에 서보자 06년생 보여지는 이미지 꾸미고 치장하자



47년생 말릴 수 없으면 구경에 그쳐보자 59년생 내내했던 걱정 시야에서 멀어진다 71년생 자꾸 부리는 고집 약으로 못 고친다 83년생 으뜸성적표로 시험을 마쳐보자 95년생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 집 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부 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